

1928년 사이공 바르비에 거리 5번지 살인사건과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남부지부

노영순*

I. 머리말

1928년 12월 9일 일요일 사이공 북부 바르비에 거리(현재의 호찌민市 리 쩌꾸안 거리) 5번지의 문이 열려져 있고 문안에는 많은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목이 잘리고 가슴은 칼에 깊이 찔려 혈흔이 낭자하고 얼굴은 불태워져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살인사건은 44명이 사이공 형사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았던 시점인 1930년 7월 중순에야 일단락 되었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으며 3명에게 가해진 사형선고를 비롯해 23명이 5년 이상의 감옥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 피살자는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Viet Nam Thanh Nien Cach Mang Dong Chi Hoi, 이하에서는 '동지회'라 약칭한다) 남부 지부의 총책임자였으며 가해자는 그 지부 구성원들이었던 까닭에 이 사건은 동지회의 남부 지부가 집단적으로 연루된 '특이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되었던 이들 중에는 나중에 베트남혁명의 지도자로 그리고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로 부상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많다는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살인사건을 직접 교사했다는 혐의로 20년 감옥형을 선고받았던 톤득탕(Ton Duc Thang)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주석을 역임했으며, 反佛 혁명단체인 동지회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10년 감옥형에 처해졌던 팜반동(Pham Van Dong)은 독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립 후 35년 간 정부수상을 역임했으며, 당시 또 다른 반불 조직인 신베트남혁명당의 당원으로 18개월의 형을 받았던 응우옌 주이 쩐(Nguyen Duy Trinh)은 15년 간 공산 베트남의 외교부 장관을 지냈고, 역시 반불 정당인 베트남국민당 당원으로 5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쩐 후이 리에우(Tran Huy Lieu)는 베트남 혁명사를 정립한 역사가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소위 혁명회고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르의 글을 남겼는데 혁명가의 후광으로 비취질 수감 경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침묵에 더하여 현재 베트남 역사가들의 무관심도 이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더해 주는 요인이다.

그래도 이 사건이 당시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고 우리와 동시대 연구자들의 몇몇 책에서 간단하게나마 지나가는 말로라도 언급되고 있다면 이는 아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에 대한 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베트남혁명가들에 대한 프랑스 식민당국의 탄압을 통계적으로 다룰 때이다. 프랑스 비밀경찰은 이 사건을 기회로 베트남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지회 회원은 물론 신베트남혁명당과 베트남국민당 당원의 삼분의 일 정도를 감옥에 넣거나 활동 근거지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둘째는 동지회 남부지역위원회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여자문제와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유발된 스캔들을 언급할 경우이다. 이 사건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 프랑스가 베트남혁명가들을 탄압한 한 장으로 보든 사건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동지회 지도자들이 개입된 염문사건으로 보든, 이러한 견해들은 이 살인사건에 대한 피상적 이해가 가져온 결과이며 부분적인 진실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전체적인 이해는 사건에 대한 재해석과 시공간적 맥락의 고려에 달려있다. 먼저 II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되도록 자세하게 사건자체를 재구성했다. III장에서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으로 프랑스 식민정권의 탄압을 받아야 했던 신베트남혁명당과 베트남국민당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경험하게 되는 변화로 중점을 확대했다. IV장은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 살인 사건이 당시 동지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혁명적 규율과 맺은 상관관계를 추적해 보고자 했으며 무엇보다도 이 살인사건의 정치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마지막 장인 V장에서는 1928년에서 1930년 사이 반불 베트남혁명가 세계의 대세였으며 주류였던 급진화 내지 무산화라는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으려고 했다. 하나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과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 살인사건의 결과 베트남 남부에서는 무산화되거나 그럴 잠

재력이 있었던 반불 혁명 파당과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렇게 해서 남부에서 중단된 이념의 조정기와 반불 혁명진영의 파편화는 비슷한 시기를 전후해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서 전개된 무산화 경향과 비교해 볼 때 남부의 '후진성'의 원인이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II. 바르비에 거리 살인 사건의 재구성

프랑스 비밀경찰국(Surete)¹⁾의 국장 나도(Nadaud)가 사이공검찰에 넘긴 1929년 7월 8일자 비밀공문과 1930년 7월 재판기록 그리고 1930년 10월의 신문기사 내용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²⁾ 베트남 남부에는 1925년 이래로 중국 광동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동지회의 지부가 있었는데 이는 남부지역위원회(남끼 끼보) 라고 불리었으며 남부에 속해 있는 띠(省)지부를 지도하기 위해 사이공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건 당시 남부 지역위원회를 대표했던 자는 레 반팻(Le Van Phat)이었다. 그는 1898년 생으로 베트남 남부 벤 쟈(Ben Tre) 출신이며 직업은 한약사였고 자신의 마을에서 제례의식을 주관하는 유지(Huong Le)였다. 그가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 동지회에 입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점은 동지회의 국내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27년이었다. 혁명교육을 받기 위해 동지회의 총본부가 있는 광동으로 간 그는 중국국민당의 반공(反共) 공세가 격심해졌던 1927년 말에 체포되어 몇 달을 중국에 있는 감옥에서 보낸 후에, 1928년 초 동지회 남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사이공으로 돌아왔다.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어서야 신원이 확인된 피살자는 다름 아닌 레반팻이었다.

- 1) 비밀경찰국(Service de Surete)은 프랑스 식민시기 베트남(베트남인들은 佛屬시기라고 함)에서 인도차이나총독부(Gouvernement Generale de Indochine)의 정치사무부(Direction des Affaires Politiques)에 직속되어 있었다. 이 정치사무부는 현재 베트남의 내무부(1997)와公安부(1998)를 합해놓은 것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기구였다. 당시 베트남어로 된 신문과 잡지는 프랑스 식민조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 이 정치사무부 자체를 안전서(So Liem Phong), 또는 비밀경찰서(So Mat Tham)라고 불렀다.
- 2)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에는 프랑스 식민지 관련 고문서 보관국(Centre des Archives d'Outre Mer, CAOM)이 자리잡고 있는데 사이공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제반 문건은 인도차이나총독부의 자료(Gouvernement Generale Indochine, GGI) 번호 65535라는 박스에 모아져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체포된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과 비밀 스파이들의 보고에 의한 정보, 이를 바탕으로 비밀경찰국과 사이공검찰, 인도차이나총독부 그리고 프랑스 본국 식민성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건 재판에 관한 문서가 망라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바르비에 사건을 기사화 한 당시 신문들의 스크랩도 있다: *L'Indochine* 1930년 10월 5일자 기사, *Le Journal* 1930년 10월 9일자 기사, 그리고 *La Defense* 1930년 10월 4일-18일 기사. 이 논문은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살인사건이 비밀혁명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이상의 자료를 이용했다.

레반팻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이는 동지회 남부 지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푼득탕이었다. 그는 남부 롱 쑤옌(Long Xuyen) 출신으로 레반팻 보다 2년 연상이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입대하여 프랑스 뚜롱(Toulon Arsenal)에서 기계공으로 복무하던 중 프랑스공산당 기관지 『위마니떼』(Humanite)를 읽고 프랑스 노동자들과도 접촉하는 과정에서 급진사상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1919년 1월 군복무를 마치고 사이공에 돌아온 그는 배수와 토지 개간사업체인 크로프(Kroff)회사에 들어가 십장이 되었다. 이 후 그는 줄곧 사이공 노동자들을 규합하는 데 몰두했다. 그가 동지회에 입회한 것은 후술하게 될 응오 티엠(Ngo Thiem)의 추천에 의한 것이며 시점은 레반팻과 마찬가지로 1927년이었다. 이때 푼득탕은 자신의 노동자 조직을 가지고 동지회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1927년에 두 달간 광동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달은 알 수 없다. 1928년 초까지 그가 동지회의 남부지역위원회를 지도했다는 것으로 보아 레반팻 보다는 먼저 베트남 남부로 돌아와서 활동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당시 그는 총본부가 남부 지부에 파견한 대표자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치명적인'(femme mortel)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는 쩐티넛(Tran Thi Nhut)이라는 18세의 소녀³⁾였다. 1928년 어느 시점에 벤 제 쑤지부가 교육을 위해 사이공으로 올려보낸 그녀를 남부지역위원회 위원장 레반팻이 '첩'(maitresse)으로 삼으면서 사건이 발단되었다.

푼득탕은 위원장인 레반팻이 이 신참나기 여성당원에게 한 행동은 부당하다며 남부 지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푼득탕은 동지회의 내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레반팻의 비윤리성을 공격하여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남부지역위원회는 푼득탕의 제안을 무시하고 쩐 티 넛을 사이공 시위원회로 보내 교육을 계속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그녀를 레반팻에게서 격리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남부지역위원회 직속 하급기관인 사이공 시위원회에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푼득탕은 레반팻이 지위를 이용해 쩐티넛을 강압했다고 이 시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단 레반팻의 권위밖에 있게 되었으며 사이공 시위원회의 비호를 받게 되자, 쩐티넛은 사이공 시위원회에 정식으로 레반팻에 대한 불평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레반팻이 그의 첩이 되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의무인양 설교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쩐티넛은 상급자이며 자신의 혁명교육을 담

3) 쩐티넛은 레오 아인(Le Oanh), 투 투이(Thu Thuy)라는 가명을 가졌으며 비밀경찰서 조서에는 순진무구하고 예쁜 여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이상 알려진 바는 없다. 그녀가 체포되었다는 기록도 도주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면이 많은 인물이다.

당한 선생인 그의 명령을 마지못해 따랐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그녀의 의식변화에는 무엇보다도 재봉노동자였던 응우옌 쥘 응우엣(Nguyen Trung Nguyet)⁴⁾이라는 열성적인 여성위원의 의식교육과 격려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이공 시위원회는 이 불평서를 다시 남부지역위원회에 진정했으나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판단한 남부지역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남부지역위원회는 이 불평서가 위원장 레반팻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이공 시위원회는 자구책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1928년 10월 30일 도딘토(Do Dinh Tho)⁵⁾는 푼득탕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던 부이 반 템(Bui Van Them)의 집에서 비밀법정을 열었다. 이 두 사람 외에 앞서 언급한 응우옌 쥘 응우엣, 응오 티엠⁶⁾, 그리고 응우옌 반 틴(Nguyen Van Tinh)⁷⁾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응오 티엠은 '피고' 레반팻이 혁명의 '자매'인 쩐티녇을 강제하여 첩으로 삼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동지회의 공금을 횡령하여 사복을 채웠을 뿐 아니라 자신의 당파를 결성하려 한 배신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으며 도딘토도 그를 단죄했다. 이 회의는 레반팻의 형량을 확정하기 위해 남부 지역 위원회의 대표와 사이공 시위원회가 참석하는 확대법정을 열 것을 결의하고 폐정했다. 이틀 후인 11월 1일 예정된 확대법정이 열렸다. 이틀 전에 열린 사이공 시위원회 비밀회의 참가자들 5명에 더하여 당반쌈, 쩐 쩡영(Tran Truong)⁸⁾ 그리고 푼득탕 3명이 남부지역위원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레반팻이 혁명의 동지이자 '자매'에게 한 행동은 동지회의 규율을 심히 위반한 것이라는 데에

4) 응우옌 쥘 응우엣은 쩐티녇보다 3살 연상으로 일찍이 동지회에 가입하여 광동에서도 혁명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나중에 레반팻의 몸에 직접 칼을 던 쩐 쩡영의 사촌 누이이며 푸 뉴언(Phu Nhuan)에 있는 양장점에서 일하는 재봉노동자였다. 동지회의 산하 대중조직인 여성조직을 책임지고 있지 않았나 한다. 이 살인사건으로 9년 감옥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녀의 이후 혁명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5) 도딘토는 레반팻을 단죄하는 '비밀재판'을 주재한 인물이지만, 복부 출신이며 '아침의 중'(Trang Chung)紙 편집자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쩐티녇과 단 둘만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 관여했지만 체포되지 않았다. 복부 출신인 것으로 보아 무산화의 선두에서 있던 동지회의 복부 지역위원회 구성원들과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6) 응오 티엠은 중부 응예 안(Nghe An)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회원을 유치하여 동지회의 남부 지부를 사이공에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당시 크로프(Kroff)의 노동자였던 푼득탕, 당반쌈(Dang Van Sam), 부이 반 템(Bui Van Them)과 재봉사 응우옌 쥘 응우엣을 동지회에 포섭한 것도 그랬다고 한다. 그가 광동에 있는 동지회의 총본부에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보아 총본부와 남부 지역위원회의 연락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다.

7) 응우옌 반 틴은 남부 고 콩(Go Cong)태생으로 쯔 런(Cho Lon)에서 재단사로 일했었다. 1928년 레반팻에 이끌려 동지회에 가입했으며 광동에서 혁명교육을 받았다. 그가 광동에 머문 기간은 9개월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회원들은 1개월 내지 2개월이면 교육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볼 때 이례적으로 보인다. 귀국 후 레반팻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남부지역위원회 회보인 『工農兵』(Cong Nong Binh)을 발간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8) 쩐 쩡영은 푼득탕, 부이 반 템, 당반쌈과 마찬가지로 크로프(Kroff)의 노동자였다.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를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일치를 보였다. 푼득탕은 레반팻을 중국으로 보내 버리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응오 티엠도 레반팻에 대한 처벌문제는 총본부와 같은 상급기관에 이송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이 사건이 '시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처형을 요구했다. 레반팻의 처형은 다수결(5:3)로 정해졌다. 방침이 정해진 이상 민주집중제의 원리대로 모든 구성원이 이 결정을 따라야 했으며 응오 티엠, 응우옌 반 틴, 쩐 쩌엥 그리고 응우옌 쩡 응우엣으로 구성된 암살단이 조직되었다.

암살단은 먼저 남부 지역위원회 위원장 레반팻의 개인 사무실 겸 지역위원회 출판부라는 명목으로 바르비에 거리 5번지에 세를 내고 그의 서류와 타자기를 옮겼다.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위의 판결은 12월 8일 밤 실행에 옮겨졌다. 통상 저녁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레반팻을 붙들어 두기 위해 여성 당원인 응우옌 쩡 응우엣이 오후 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다. 저녁이 되자 응우옌 반 틴과 응오 티엠이 레반팻을 방문했으며 수면제가 든 커피를 레반팻에게 주었다. 레반팻이 잠에 취하자 응우옌 반 틴은 밖에 나가 대기하고 있던 쩐 쩌엥을 집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응우옌 반 틴과 응오 티엠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레반팻의 몸을 붙들고 있는 동안 쩐 쩌엥은 그의 목을 따고 가슴을 칼로 찔렀다. 신음 소리를 막기 위해 걸죽한 죽을 입 안으로 들어 붓기도 했다. 살인이 끝나자 쩐 쩌엥은 밖으로 나가 푼득탕을 차에 태우고 사건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푼득탕의 지시에 의해 암살단은 동지회의 흔적이 될 수 있는 모든 문건과 물건들을 차에 실었으며 죽은 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분증을 없애고 그의 얼굴을 냇마 솜으로 덮고 휘발유를 부어 태웠다. 이 살인사건 후 관련된 이들은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흩어졌다.

III. 살인사건과 비밀혁명단체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건장한 남자의 시체를 접한 순간 프랑스 경찰은 이 살인사건이 보통의 살인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며 정치적인 살인일 수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통은 여러 비밀혁명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튀었다. 여기에는 살인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프랑스 경찰의 탄압으로 남부에 있던 비밀혁명단체들이 일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프랑스 경찰의 검거 리스트가 없었더라면 알 수 없었을 당

시 반불 활동가들의 신원과 활동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주민조사를 통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프랑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포코(Faucault)거리 11번지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여기에 매복해 있다가 1928년 12월 9일 저녁 응우옌 주이 쩐(Nguyen Duy Trinh)⁹⁾을 체포했다. 같은 장소에 계속 매복했던 경찰은 10일 다오 쑤언 마이(Dao Xuan Mai)¹⁰⁾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모두 반불 혁명조직인 신베트남혁명당의 남부지역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12일과 14일 사이 다오 쑤언 마이와 응우옌 주이 쩐이 가지고 있었던 신베트남혁명당의 조직에 관한 자료와 자백을 통해 경찰은 샹파뉴(Champagne) 거리에 있는 주소지에서 4명을 더 검거했다: 쩡잉 쩐(Truong Sinh, 팡 빈 출신), 레종만(Le Trong Man, 하 띨 출신), 응우옌 비엣 호(Nguyen Viet Ho, 팡 빈 출신), 응우옌 보(Nguyen Vo, 팡 빈 출신). 14일과 18일 사이 심문을 통해 응예 안, 하 띨, 팡 빈 출신으로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1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반불혁명자료를 몰수했다. 그 중에는 응우옌 코아 티 찌(Nguyen Khoa Thi Chi)와 응우옌 코아 보이 란(Nguyen Khoa Boi Lan) 자매, 그리고 응우옌 코아 반(Nguyen Khoa Van)¹¹⁾도 있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프랑스 경찰의 감시망에 걸려든 비밀혁명단체는 신베트남혁명당¹²⁾이었다. 제 1의 활동 거점을 중부에 두고 있었던 이 당은 동지회와 나란히 1927년부터 남부

-
- 9) 응우옌 주이 쩐은 중부 응예 안 출신으로 빈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는 당시 신베트남혁명당의 당원으로 사이공에서 다오 쑤언 마이를 위해 타이프를 쳐주는 조건으로 매달 25피에스타를 받았다. 구속 후 치안을 교란시킨 죄목으로 18개월간의 감옥형에 처해졌다. 형기를 마친 그는 1930년에 인도차이나공산당(Dong Duong Cong San Dang)으로 당적을 바꾸었다. 응예 띨 소비에트 시기(1930-1931)에는 한 縣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독립 후에는 정치부위원과 외무부장관을 역임했다.
- 10) 다오 쑤언 마이는 중부 빈 출신으로 당시 25세였다. 1927년에 이미 2개월간 감옥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그는 신베트남혁명당의 우두머리 중의 하나인 호 씨 쩐(Ho Si Kinh)으로부터 매달 150피에스타를 받고 일했다고 자백했다.
- 11) 당시 20살이었으며 베트남 중부 트어 티엔(Thua Thien)출신이다. 몇 년 후 마르크스주의를 고무하는 신문에 글을 썼으며, 필명은 하이 쩌에우(Hai Trieu)이었다. 최근의 이름은 응우옌 코아 디엠(Nguyen Khoa Diem)으로 베트남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 통신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 12) 1908년부터 1912년 사이에 중부에서 일어났던 항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죄목으로 폴로 콩도르섬에 유배되었던 베트남 애국인들이 감옥에서 결성한 復越(Phuc Viet)이 모체이며 1925년과 1926년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계기로 판 보이 찌우(Phan Boi Chau)계 인사들을 포섭하여 조직 개혁은 물론 기관명도 興南(Hung Nam)으로 바꾸었다. 혁명진영의 일원화에 우선권을 두고 동지회와 합당을 시도하면서 베트남革命黨(Viet Nam Cach Menh Dang), 베트남혁명동지회(Viet Nam Cach Menh Dong Chi Hoi), 신베트남혁명당(Tan Viet Nam Cach Menh Dang)으로 여러 차례 당명을 바꾸면서 조직과 이념을 조율했다. 1928년 이전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1933년 인도차이나총독부가 펴낸 *Contribution a l'Histoire des Mouvements Politiques de l'Indochine Francaise*, Documents Vol. I. Le "Tan Viet Cach Menh Dang", "Parti Revolutionnaire du Jeune Annam" (1925-1930) 15쪽에서 40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었다. 다른 혁명단체와의 통합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1928년에 신베트남혁명당 남부 지부는 베트남국민당과 공식적인 연락관계를 수립했으며 바르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얼마전인 7월에는 동지회와의 합당을 전제하여 당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강화시키고 기강을 바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OIR Report』 49/08/01: 23-24). 중심인물인 판 당 르우(Phan Dang Luu)와 레 리엔 부(Le Lien Vu)가 합당을 위해 중국 남부와 베트남을 오가는 사이 신베트남혁명당 중앙위원회에는 다오 주이 아인(Dao Duy Anh)과 응오 득 지엔(Ngo Duc Dien)만이 남아 있었다. 이 둘도 『인민의 소리』(Tieng Dan)라는 잡지에 몰두하느라 당 지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남부 지부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으로 예기치 않았던 탄압을 받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남부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다오 쑤언 마이를 비롯해 수십 명이 검거되고 당의 비밀문건이 압수되자 대다수의 신베트남혁명당 당원은 활동을 멈추고 몸을 피했다. 이 기회를 이용해 판 당 르우는 12월 말에 체포를 면한 남부지역위원이었던 하 후이 텡(Ha Huy Tap), 쩐 팜 호(Tran Pham Ho), 쩐 응옥 자인(Tran Ngoc Danh), 등 5명을 국외로 도피시켰다(CAOM 1933a: 49-51). 이들은 모두 나중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남부지역위원회에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던 하 후이 텡은 피신한 중국에서 동지회로 전향하여 1930년대 중반에는 인도차이나공산당 2대 총서기가 되었는데, 이는 초대 총서기인 쩐푸(Tran Phu)의 혁명이력과 너무나 비슷한 것으로 신베트남혁명당 입장에서 본다면 뛰어난 지도자를 동지회에 넘기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의 여파로 남부에 있던 조직이 와해되자 남아 있던 신베트남혁명당 당원들은 당에 대한 실망으로 혁명 활동을 아예 포기하기도 했으며 합당에 열성적이었으며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자의 일부는 동지회로 빠져나갔다.

이에 더하여 동지회와의 협상은 兩黨 중앙의 무능력으로 표류하고 경찰의 탄압으로 응오 득 지엔마저 체포되자 1929년 초 신베트남혁명당은 합당협상과정에서 채택했던 공산주의적 색채를 던져버리고 보수화되어 갔다. 1929년 초부터 응우옌 안 닌(Nguyen An Ninh)¹³⁾은 자신의 조직을 이 신베트남혁명당에 건네 주었다고 한다(Ban nghien cuu lich su Dang, 1981:16-17). 이로 인해 신베트남혁

13) 응우옌 안 닌은 1900년 베트남 남부 쩐 룡(Cho Lon)에서 태어나 사이공, 하노이,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다. 1923년에서 1926년 사이에 사이공에서 가장 저명한 정치지도자였으며 지식인이었다. 이 기간 중 그가 심혈을 기울여 펴냈던 잡지 『警鐘』(La Cloche Felee)은 그 자신의 사상 변화와 더불어 1920년대 베트남 지식인들의 정치성향에 대한 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선진적인 유럽과 프랑스의 문물을 베트남에 도입하고 베트남과 프랑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던 논지는 정치자유화를 요구하고 베트남적인 문화의 부흥을 추구하고, 그리고 간디와 타고르 사상을 소개하는 데로 옮겨가다가 1925년 말에 이르러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으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1926년 5월에는 강제 폐간되기에 이르렀다.

명당은 사이공 같은 도시에서는 물론 자 딘과 쩌 런 같은 사이공 근교 농촌지역에서도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이 없거나 동지회에 흡수되어 버린 지역에 당원을 파견함으로써 가시적인 결과를 얻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활동자금이 태부족하고 동지회와 차별화된 이념과 행동강령을 분명히 마련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온건해진' 신베트남혁명당은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다 프랑스 경찰의 탄압으로 약화일로로 걸었다. 이에 따라 1929년 후반부에는 당내에 남아있던 급진주의 세력은 나중에 창당될 공산당과의 합당이라는 전제 하에 인도차이나공산연맹(Dong Duong Cong San Lien Doan)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했다(『OIR Report』 49/08/01: 20). 그 중요 지도자들인 응우옌 딘 끼옌(Nguyen Dinh Kien), 쩌 후우 주옹(Tran Huu Chuong), 하이 쩌에우(Hai Trieu) 등이 1930년 초 체포된 이후에 인도차이나공산연맹의 남부 지부는 하이 타인(Hai Thanh 또는 Nguyen Hoang), 레종만과 호우 등(Huu Dung 또는 Nguyen Van Loi)이 지도하고 있었다(Tran Huu Chuong 1983: 40-44). 이들이 바로 1930년 2월 베트남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운동이 통일되자 자신의 당명을 버리고 개인 자격으로 공산당원이 되었던 신베트남혁명당의 마지막 지도자였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과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었으면서도 이 사건 때문에 구성원이 체포되고 당 자체가 변화를 겪은 것은 신베트남혁명당 뿐만은 아니었다. 사이공과 여타 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베트남국민당 당원들도 신베트남혁명당 만큼은 아니더라도 타격을 입었다. 1927년 11월에 하노이에서 결성되어 베트남 북부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베트남국민당은 가장 호전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신베트남혁명당 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베트남국민당도 1928년 이래로 다른 반불혁명단체와의 통합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8년 후반부에 신베트남혁명당 남부 지부와는 연락망 구축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마도 손문의 삼민주의를 신봉하는 베트남국민당의 핵심세력이 다른 혁명단체를 일방적으로 '흡수'하고자 하는 원망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29년 5월을 기점으로 동지회가 대 베트남국민당 투쟁을 선언하면서 합당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국민당으로서 당원과 대중을 빼앗아갈 수 있는 동지회라는 강력한 적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트남국민당은 프랑스 식민정부의 탄압과 함께 동지회의 도전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갔다.

1928년을 통해 동지회와의 통합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벽에 부딪쳐 실패하고 신베트남혁명당과의 부분적인 통합 성공은 규모가 작았던 관계로 베트남국민당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데다가 중국국민당 계통의 總督, 특히 광서총독

의 지원을 얻는데 실패하고, 당 재정을 확충하려고 시작했던 호텔사업은 프랑스 식민당국의 방해로 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OIR Report』 49/08/01: 21-23)이 바로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베트남국민당의 현실이었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으로 쩌 후이 리에우를 비롯해 응우옌 호아 히엵(Nguyen Hoa Hiep), 응우옌 프엉 타오(Nguyen Phuong Thao, 비밀명은 Nguyen Binh), 호이 동 톤(Hoi Dong Ton), 부 응옥 끼우(Vu Ngoc Kiu) 등이 수감되면서 베트남국민당 남부지역위원회는 와해되었다. 살인사건으로 구속되었던 당시 베트남국민당 남부지역위원회의 우두머리였던 쩌 후이 리에우는 수감 중 공산주의자로 전향하여 응예 띵 소비에트운동이 한창이던 1930년 중반 그 핵심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1930년대 중반에는 출판사업을 통해 북부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공개활동 부분 지도자가 되었다. 동지회의 공산주의적 색채로 인해 일찍이 동지회와의 합당 노력을 철회하여 동지회로의 당원의 유출을 신베트남혁명당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 수 있었지만 쩌 후이 리에우같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실은 남부에서 베트남국민당의 재건을 요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동지회와의 통합에 대한 미련과 공산주의에서 베트남혁명의 해답을 찾는 길을 포기한 베트남국민당은 새롭고 창의적인 이론과 실천의 틀을 만들어 내야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내에는 이미 여러 급진사상의 세례를 받은 요인들이 삼민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당론은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를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도 부재했던 상황에서 당원들은 최소공배수인 실력(폭력)에 의한 혁명만이 강조하기에 이르렀다.¹⁴⁾ 이로 인해 군인을 당원으로 충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류탄이나 폭탄제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베트남국민당이었다. 게다가 베트남국민당은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는 암살위원회(또는 암살단)라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1928년과 1929년을 통해 프랑스정부 스파이와 당의 배신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여러 명 제거했었다(Tran Huy Lieu et al. 1958: 57-61). 정치적 암살이 빈번히 일어나자 프랑스 당국의 탄압도 거세어졌으며 베트남국민당 지도자들의 조바심도 가속화되는 악순환 속에서 베트남국민당은 약화되었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 사건으로 베트남국민당 남부 지부가 탄압을 받은 얼마 후 또 다른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1929년 2월 9일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모집해 멀리 태평양에 있는 프랑스령 칼레도니아와 가깝게는 베트남 남부에 있는 고무농장에 인력을 공급했던 인도차이나인력회사의 중역인 바쟁(Bazin)을 암살한 사건

14) 베트남국민당의 정체성 찾기와 그 어려움에 관해서는 쩌 후이 리에우의 다음 회고록에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Vien Su Hoc. 1991. *Hoi Ky Tran Huy Lieu*. Hanoi: Nha Xuat Ban Khoa Hoc Xa Hoi.

을 계기로 천명이 넘는 베트남국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체포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베트남국민당의 네트워크는 심각할 정도로 손상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3일 열린 특별형사법정에서 227명의 베트남국민당 당원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중 80명이 2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Huynh Kim Khanh 1982: 94-96). 베트남국민당의 예에서는 프랑스 식민당국의 탄압이 어떻게 이 정당을 과격화시켜 갔는지가 명확히 보인다. 바쟁 암살사건을 이은 탄압으로 궁지에 몰린 베트남국민당 지도자들은 앉아서 전멸을 당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던 1930년 2월에 베트남 북부 옌 바이(Yen Bay)를 중심으로 병사반란을 기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한 탄압으로 국내의 조직이 거의 꺾멸되고 중국 남부지방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게 되었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이 베트남국민당과 신베트남혁명당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설명에 더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왜 프랑스 식민당국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1년 반 이상이나 지체했으며 살인사건과는 관계없는 '비밀결사'사건을 함께 묶어 처리했는가의 문제이다. 반불혁명단체 간의 유사성과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베트남인들은 물론 프랑스 식민당국도 굳이 이들을 구별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특히 프랑스당국은 이들을 탄압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주저없이 이들을 한 바구니 안에 넣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반식민정부 활동가들을 살인사건과 함께 기소함으로써 탄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반불 혁명단체 간의 관계가 주목되어야 한다. 그들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물론 모든 혁명세력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신베트남혁명당과 베트남국민당 지도자들은 물론 동지회를 주도해 만든 응우옌 아이꾸옥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고지도자들의 변함없는 의지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결렬된 후 2년 뒤인 1929년 5월에 베트남에서도 혁명진영의 이원화는 피할 수 없는 진로였다.

반불 혁명조직 간의 통합노력이 단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 과정에서 반불 혁명단체의 조직간·이념간 유사성이 증가했으며 조직 구성원간의 교류가 활발해 졌다는 사실은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예를 들어 동지회의 교육자료, 당규, 조직의 위계질서 등이 다른 혁명단체들에 의해 복사되었다. 통합을 전제로 한 단순한 조율이든 아니면 우월한 개념과 분석 덕분이든 동지회의 전략과 전술은 1920년대 후반 혁명활동가들의 언어가 되어갔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를 사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했다. 물

론 급진화의 정도는 단체에 따라 그리고 개인 구성원에 따라 달랐으나 전반적인 방향성은 급진화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러 반불 혁명단체에 속한 활동가들이 속한 단체는 달라도 같은 고향이나, 출신학교, 친인척관계로 인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충분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남부에 있는 거의 모든 반불 혁명단체의 활동가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비밀결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IV. 베트남청년동지회의 여성관과 혁명적 규율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직후 신베트남혁명당과 베트남국민당 당원들이 식민 당국의 탄압을 받아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당 자체가 일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적어도 반년동안은 살인사건의 장본인이 속해 있던 동지회는 상대적인 당의 안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탄압을 비켜갈 수 있었다. 살인사건 얼마 후 응오 티엠은 동지회의 총본부에 이 내부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사이공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보고를 받은 총본부는 팜반동¹⁵⁾과 응우옌 김 끄엥(Nguyen Kim Cuong)에게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임했다. 또한 기존 남부 지역위원회를 해산하고 똌득탕을 중국으로 소환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똌득탕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다른 비밀결사(노동당)를 조직하기 위해 당을 이탈했다고 한다. 응오 티엠은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1929년 6월 중부에 있는 빈(Vinh)에서 구속되었으며 이를 계기를 비밀경찰의 수사는 활성화되었고 조만간 동지회의 남부 지부 구성원 대부분이 구속되었다. 1929년 7월 23일 똌득탕이 사이공에서, 부이 반 템이 푸 뉴언(Phu Nhuan)에서, 팜반동이 사이공에서 구속되었다. 프랑스 경찰은 또한 도딘토의 집을 수색하여 살인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동지회 회원이었던 부 응옥 끼우(Vu Ngoc Kiu), 응우옌 김 끄엥, 르우 반 풍(Luu Van Phong) 등 수 십 명을 체포했다. 다음날 24일에는 10여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쩌엥과 당반쌌이 사이공에서 검거되었다. 이리하여 살인사건 관련자들은 물론 동지회의 남부 지부원들이 경찰에 거의 완전히 노출되었으며 수 백 명이 체포되면서 남부 지부는 거의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

15) 팜반동은 1940년대에 베트남 독립동맹(Viet Minh)을 창설한 자로, 그리고 베트남혁명 후에는 장수한 수상으로 유명하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았었으며 1929년 5월에는 남부 지역위원회의 대표로 동지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했으며 체포이전까지 동지회 남부 지부를 지도했다.

건의 전모라는 것은 이유있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이 살인사건을 보기 위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구속된 자들의 자백에 근거를 둔 프랑스 식민당국의 기록이고 보면 적어도 두 가지의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하나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관련자들은 사건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동기가 은폐 또는 침묵되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경찰 자료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건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맥락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

II장에서 보았듯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관련자들의 자백을 통해 보면 레반팻을 살해하기로 한 동기 중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그가 혁명의 자매를 범했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여성의 문제가 당시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었던 동지회에 의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의 허구를 가장 명백히 볼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여성관을 보는 것이라고 했던 어느 공산주의자의 말이 드러내는 것처럼 후대까지도 혁명에서의 여성은 주로 단순하고 편리한 동원대상이었다. 그러나 '여성'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히 의의가 있으며 베트남 사회의 급진화와 때를 같이하여 발생했던 바르비에 거리 살인 사건이 혁명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관련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당시 동지회의 기관지였던 『청년』(Thanh Nien)이 여성문제를 논의한 맥락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은 여성과의 관련 속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여성혁명 세력의 전위로 여성 무산자를 설정한 것이 한 예이다. "토지를 자본가에게 빼앗기고 남부와 중부의 플란테이션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상황은 대자본가의 권력에 희생당하고 있는 무산자의 경우와 같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여성혁명세력의 핵심으로 혁명의 적과 프랑스 제국주의를 곧 파괴시킬 인민군대의 전위대이다"(『Thanh Nien』 28/04/04, Hue Tam Ho Tai 1992: 210에서 재인용). 여성 운동가들은 같은 여성에게 접근하여 혁명의 대의명분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동지회 산하 대중단체인 부녀회로 조직하는 것이 주요업무였다.

남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을 논할 때에는 남성의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혁명이라는 '가정'에서 여성들은 이 가정을 지키는 내조자였다. 그들은 주로 식사준비, 청소, 빨래를 했으며 잔심부름을 했다. 동지회 회원들의 아내들은 비밀 모임장소를 망보고 경찰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연락업무나 비밀문서 전달을 담당하기도 했다.

동지회는 19개의 최소강령에서 15번째 항목으로 양성의 완전한 평등을 규정해

놓았지만(CAOM 1933b: 55-56) 이는 구호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이나 야간 작업에 아동노동과 여성노동을 고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지회가 여성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녀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억압이 특수한 것으로 남성에 의해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족제도와 전통적인 의식에 의해 강화된다는 사실은 논의되지 못했다. 여성들에게 프랑스의 제국주의나 자본가의 압제보다도(최소한 이에 더하여) 남성과 전통에 의한 억압이 더욱 우선적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전반적인 혁명의식의 발전과 비교해 볼 때 더욱 확연해진다. 즉 1920년대 중반까지는 혁명의식이 민족의식과 일치하였다면 192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민족의식 이상으로 변화했다.

당시 여성자신도 많은 의식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혁명에 투신했던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혁명활동과정에서 남성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남들이 자신을 '미덕이 없는 여자'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쩌티넷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건적인 압제가 있을지언정 일정한 보호장치의 구실을 해왔던 집과 가정을 떠나 혁명에 투신한 여성들은 일신상의 불안정은 물론 사회적인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무릅써야 했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 정치에 몸담은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은 이미 반불 활동에 투신한 가정 출신이거나 동지 같은 남자와 결혼해 혁명가의 아내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해외에서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재건했으며 최고지도자였던 레홍퐁(Le Hong Phong)의 아내였던 응우옌 티 민 카이(Nguyen Thi Minh Khai)와 같은 시기 투쟁그룹(La Lutte)의 주요 인물이었던 판반흠(Phan Van Hum)의 아내였던 마이 후인 호아(Mai Huynh Hoa)가 대표적이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진정한 혁명가'다운 자질이 부족하고 다른 자매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잡지 『청년』은 언급하고 있지만(『Thanh Nien』 28/08/26, Hue Tam Ho Tai 1992: 211에서 재인용). 여성노동에 의지하는 방직공장과 성냥공장과 같은 경공업 산업체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참가한 것은 바로 여성이었다. 여성은 시위에서 경찰의 저지선 맨 앞줄에 서서 시위대를 보호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동지회는 이와 같은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동지회가 여성문제를 독립된 문제로 보지 않고 혁명의 승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맡겨졌던 미덕을 가진 내조자의 역할을 기대했었다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서 여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은 아무 것도 읽어 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여성이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면서 혁명에서의 남녀관계를 반식민지 투쟁에 여성을 가담시키기 위해 다소간 평등한 관계라고 의제되는 자매라는 용어를 썼다는 정도일 것이다. 사실 자매라는 단어는 상당히 가족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용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살인사건은 켄티넷이라는 여성의 침해당한 인권을 보상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 레반팻을 단죄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레반팻이 혁명의 자매를 범한 것은 남부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일 뿐 만 아니라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둔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남부 지역위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였다. 그러나 혁명의 자매를 첩으로 삼은 행위가 혁명가 사회의 범죄 의식으로 자리잡았다거나 비밀법정을 열어 남부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시 프랑수경찰과 신문들은 뜯득탕 또한 켄티넷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던 차여서 심한 질투를 느껴 나중에 살인에 직접 가담하게 될 동료들을 부추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은 동지회의 남부 지역위원회 고위 지도자들간 치정에 얽힌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더하여 레반팻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격, 즉 뜯득탕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뜯득탕이 개인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뜯득탕이 총본부가 남부 지역위원회에 파견한 대표자였다는 것으로 보아 레반팻에 비해 지위가 낮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동지회 위계질서의 불명확성이나 지도자들의 자의성이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 나이로나, 학력으로나, 혁명활동으로나 우위에 있는 뜯득탕이 지위가 공로에 비해 높은 레반팻을 질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질투심이 살해의 동기가 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집단적으로 남부 지부를 동원하여 비밀법정이라는 정식의 절차를 거쳐 구형이 이루어졌으며 질투심을 느낀 당사자가 아니라 이와는 관계없는 암살단이라는 다수가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개인적인 경쟁관계로 이 살인사건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적어도 동지회 남부 지부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레반팻이 남부 지부의 회비를 비롯해 공금을 횡령하여 사복을 채우고 있다는 혐의를 보자. 이러한 의심은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에서 비롯되어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으로 인해 강화된 것 같다. 그에겐 '혁명가'다운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이들에게 레반팻은 봉건적 가부장사회에서 권력을 자행하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으며 촌에서 올라온 무지하고 어리석은 뽀띠 부르조아였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 노동자나 농민의 생활방식과 의식구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질이 부족한 지도자였다. 이러한 불신은 반정부단체로서 모든 활동이 비

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원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부재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당시 급속도로 무산화 그리고 급진화되어 가고 있었던 혁명진영 구성원들의 의식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뚝뚝탕은 적어도 자신의 명분을 위한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무산화의 과정에서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행동과 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 뚝뚝탕이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금까지 횡령하고 있는 레반팻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적개심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해 볼 때 많은 동지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뚝뚝탕은 남부 지부 차원에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레반팻을 응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회원의 회비가 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 규모도 작았고 총본부 수준에서의 공금횡령도 좌시되었던 사례로 보아 비판과 징계의 대상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상의 단지 두 가지 이유만으로 우두머리를 사형하기에 충분했을까? 당시의 규율문제가 아무리 중요했다고 하더라도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서 여자문제나 공금 횡령 등 레반팻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본다. 저지른 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비례하지 않았다고 동지회의 총본부가 사후에 지적한 점은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레반팻이 살해당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자신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는 동지회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 권력남용 혐의와는 달리 동지회의 내규(CAOM 1933b: 67-68)에 의해 살해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¹⁶⁾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건의 피의자들도, 프랑스 경찰의 보고서도, 신문의 기사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뚝뚝탕 또한 동지회를 떠날 생각을 했었다는 것과 동지회 총본부가 사후 지시를 통해 뚝뚝탕을 소환하려고 하자 그가 이에 불응하고 체포되기 전 사이공에서 '노동당'의 창당을 기도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뚝뚝탕도 동지회

16) 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예는 이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들 수 있다. 1929년 5월 북부에서 쩌티누(Trinh Thi Nhu)와 쩌티엔(Trinh Thi Yen) 자매가 구속된 아버지를 빼오는 데가로 인도차이나공산당(舊동지회 북부지역위원회)의 기밀을 프랑스 비밀경찰에 폭로했다는 혐의로 동지회의 '암살단'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는 동지회 북부지역위원회의 주요 지도자이자, 가장 능력있는 프랑스 비밀경찰의 앞잡이 즈영 학 던(Duong Hac Dinh)이 호 응옥 란(Ho Ngoc Lan)을 교사하여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동지회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베트남에 공산당의 창당을 예고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동지회의 1차 전국대회(1929년 5월)에 북부 지역위원회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던 응오 뚜언(Ngo Tuan 혹은 Nguyen Tuan 혹은 Kim Ton이라고 불림)이 1930년 2월에 동지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살해 이유는 1929년 6월에 프랑스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동지들의 회원명단을 경찰에 넘겨 당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를 '배신'할 의도나 최소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부의 최고 지도자를 상급기관인 총본부에 재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살해했으며 그 이유로 '시각을 다투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V. 프롤레타리아트化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은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반팻과 툰득탕 사이에 존재했었던 개인적인 알력 -나이, 여자, 지위, 활동경력, 성격차이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이 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툰득탕이 레반팻의 권위에 복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과 지지자들의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툰득탕은 노동운동에 상당기간을 투신해 왔으며 살인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의 지지자들은 거의 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볼 때 오히려 툰득탕의 이러한 '배신' 의도를 레반팻이 눈치채고 있었을 지 모른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1928년 총본부가 약화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툰득탕과 지지자들은 이 때문에 불안했을 것이다. 쩌티넷에 대한 레반팻의 부정행위와 공금횡령 혐의를 이용하여 레반팻의 지도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남부지역위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체 구제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을 살해당한 사람의 죄과보다는 살해한 사람들의 동기라는 면에서, 치정사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아 전개한 위의 추론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인 무산화를 염두에 두어야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에 있어 가장 커다란 변화는 동지회 회원들의 의식의 변화였다. 1930년대 능력이 출중한 비밀경찰 국장 마르띠(Marty)가 단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1926년에는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이 1929년에는 신념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마르크스-레닌적 용어들이 베트남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미래를 설명하고 조망하는 지배적인 언설로 자리를 잡아가고, 봉건적인 의식구조가 반성의 주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제국주의, 베트남 봉건세력과 인민의 억압자를 몰아내고자 원했던 운동가들이 '혁명가'다운 상(像)을 만들고 있었던 '특별한' 시점인 1920년대 말에다 바르비에 살인사건을 위치시켜 본다는 것은 사건의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물밑에 잠겨있는 거대하고 주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이라는 창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통찰하기 위함이며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이 동지회의 남부 지부 내에서 무산화된 집단과 그렇지 못한 분자들 간의 충돌이라는 앞 장에서의 논거를 뒷받

침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프롤레타리아트화 즉 무산화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전반에 걸쳐 반불 혁명단체의 급진세력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신조였다. 무산화를 가장 먼저 실천한 동지회는 반불 투쟁의 전선에서 다른 혁명단체들을 주도하게 되어 1920년대 말에는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동지회 회원의 무산화에만 논지를 집중시키고자 하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무산화를 의식적인 무산화와 무산화의 정치적인 결과들을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의식적인 무산화는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서 보이듯 동지회 회원의 정서적 알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산화는 통상적으로 무산계급 출신이 아닌 당원이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여 그들이 무산계급혁명의 주체가 되도록 고무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무산화란 동지회 회원을 도덕적·의식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산자를 경멸"하거나 "방탕하고 타락한 삶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 그리고 "당의 규칙에 코웃음을 치는 태도"는 때때 부르조아 구성원이 하는 행동으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배신하는 행위였다(『Thanh Nien』 29/01/10, Huynh Kim Khanh 1982: 111에서 재인용).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면 비싼 옷을 벗어 던지고 무산계급의 넝마를 걸쳐야 했으며 그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는 이상형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시되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배척을 당했고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서 보듯 살해까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감정상태를 만들어 갔다.

무산화의 또 다른 측면은 구성원들에게 노동자 계급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곤고, 수치, 억압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농촌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플란테이션에서 일하게 된 동지회 회원들은 홍수와 가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 속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신체적인 고통과 인격적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 속에서 민족독립이라는 신화가 이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Tran Van Cung 1961: 110-111). 많은 이들은 무산자계급에 속한 노동자와 농민의 해방까지도 이룩하는 길은 공산주의라는 해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설득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은 1928년부터 가속화되었던 농민과 노동자의 시위와 파업을 통해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의식상의 무산화가 진행되면서 동지회 구성원의 이질화 내지는 정치적 차별화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혁명진영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를 특징지운 많은 정치적인 폭력인 암살과 살인을 낳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 조직의 부정합성을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창당을 주창하고 나선 급진 분자들은 이후 베트남 공산운동의 주도권을 행

사할 주체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지회 분열이라는 측면보다 이론과 실천으로 무장한 중요한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산화를 통해 동지회가 형해화되고 그 안에서 성장한 급진세력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보자.

1929년 초에는 가장 먼저 무산화된 동지회의 북부회원들이 최초의 공산세포 조직을 베트남 국내 하노이에서 결성했으며 3월 29일 북부지역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공산당 창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무산화 과정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산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파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보수파는 1929년 5월 1일에서 9일 사이 홍콩에서 열린 동지회 1차전국대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북부의 대표인 응우옌 뚜언(Nguyen Tuan), 응오 자 뜨(Ngo Gia Tu), 쩐반퐁(Tran Van Cung)이 회의석상을 박차고 나갔으며 남아 있던 총본부의 지도자들인 레홍선(Le Hong Son), 램득투(Lam Duc Thu) 레 러이(Le Loi)는 이들을 동지회에서 제명한다고 선언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북부대표단은 1929년 6월 17일 북부의 각지에서 파견된 20여 명의 대표단회의에서 동지회의 해산을 선언하고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창당했다.¹⁷⁾ 북부에 전진기지를 마련한 인도차이나공산당 지도부는 동지회 1차전국대회의 대회장을 뛰쳐나오지는 않았지만 북부 대표단에 동정적이었던 중부 대표단을 설득하여 중부에서도 세를 얻는데 성공했다.

동지회 북부 지역위원회가 무산화의 결과 위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점을 전후하여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의 현장이 된 남부 사이공에서 동지회의 회원들 사이에도 비슷한 종류의 이질화 현상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남부에서의 동지회의 활동은 판쑹빈(Phan Trong Binh)과 응우옌 반 러이(Nguyen Van Loi)가 광동에서 돌아 온 1926년 10월부터 적극적으로 되었다(Ban nghien cuu lich su Dang 1981: 15). 이후 팜반동, 응우옌 응옥 바(Nguyen Ngoc Ba), 판쑹광(Phan Trong Quang)등이 합류하면서 동지회 남부 지부의 활동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부터는 혁명적인 서적들도 사이공으로 대량 유입되었다.¹⁸⁾ 동지회 북부 지역위원회가 1928년 초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무산화가 같은 해 중반 제6차 코민테른 대회 이후에는 초당적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필시 남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장 먼저 급진화된 북부위

17) 인도차이나공산당 창당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이 많은 참고가 된다. Smith, R. B. 1998. "The Foundation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1929-1930." *Modern Asian Studies*, Vol. 32

18) 프랑스 경찰이 바르비에거리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몰수한 서고에는 불어로 된 공산주의 이론, 행동, 내란기술에 관한 책과 자료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Sur la Route de l'Insurrection*, *Lenine: ABC du Communisme*, *Boukharine: La Revolution du Proletarisme et le Renegat Kaotsky*, *Lenine: L'internationale Communiste au Travail*, *Zinoviev: 4e Congres Communiste Mondial - Resolution: Les Allies de la Russie*, *Kestjiezky* 등이다.

원회에서 파견한 쩌뜨쨌(비밀명은 Bang Thong)과 무산화의 주창자이며 최초의 공산당인 인도차이나공산당을 북부에서 창당한 주요 인물인 응오 자 뜨를 위시한 능력있는 공산주의자들이 1929년 초부터 남부에서 세력을 얻고 있었다.

남부 자체 내에서도 급진화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푼득탕은 자신이 조직해놓은 비밀 노동조합원과 함께 동지회 남부 지부에 들어오면서 남부에서의 무산화된 급진세력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노동자라는 출신성분에서나 계급의식도 투철했던 이들이 남부 지부에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발전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따라 동지회 총본부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위원장 레반팻과 다수 남부지역위원회 구성원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푼득탕이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남부지역위원회에 맞설 수 있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자신의 지지자들이며 다수의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공시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이공시위원회와 일부 소수의 남부위원회 위원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남부위원회의 총수를 단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은 여자문제이든, 개인적인 갈등이든, 권력투쟁이든 레반팻과 푼득탕이라는 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 동지회 내에서 무산화를 통해 이질화되고 있던 양대 집단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이 갈등은 구세력을 대표하는 남부지역위원회와 무산화된 사이공 시위원회의 대립으로 표현되었으며 급기야는 살인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이 두 위원회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경향이 있어 1930년에는 아예 지역위원회가 있는 도시에는 시위원회를 두지 않는 규정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살인사건으로 남부에서 구세력의 대표인 레반팻은 급진화된 요인들에 의해 제거되었지만 후자는 또한 프랑스 경찰의 탄압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동지회가 공산당창당 문제를 놓고 분열한 이후 남부 지역위원회의 지도자들은 북부의 동료들과는 달리 총본부가 원했던 대로 동지회를 존속시키는 데에 동의하고 총본부의 충실한 하급기관으로 남아있었다. 이는 자생적인 무산화 세력이 바르비에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자나 수인의 몸이 되어 있었으며 총본부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남부에 파견하였던 '광동의 사람'인 팜반동이 남부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역사전개로 볼 때 다른 남부의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는 급진화 되어 가고 있던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남부의 동지회 지도부는 구노선을 고집했던 1차전국대회가 끝난 지 채 3달도 되지 않은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안남공산당을 창당하여 남부에 있던 동지회의 회원을 흡수해 나갔으며 쩌우 반 리엠(Chau Van Liem)을 우두머리로 하는 임시 중앙위원회가 11월에는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Ban nghien cuu lich su Dang

1981: 19). 동지회의 총본부도 안남공산당의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불가피한 결론으로 받아들여 안남공산당을 동지회의 전통을 잇는 합법적인 공산당으로 인정하고 코민테른의 재가를 신청했다. 바로 이 시점은 인도차이나공산당이 남부에서도 동지회와 맞먹는 강한 경쟁자로 등장한 때였다. 인도차이나공산당 남부 지부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중부와 남부의 동지회 회원들이 급속도로 인도차이나공산당에 흡수되어 가고 있던 상황에서¹⁹⁾ 남은 동지회의 회원들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인도차이나공산당에 합당을 제의하는 것과 자체로 또 하나의 다른 공산당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부 활동가들의 자질이 공산당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인도차이나공산당과의 합당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창당된 안남공산당의 위세는 인도차이나공산당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미약했다. 이로 인해 1930년 2월 응우옌 아이 꾸옥이 주재한 통일회의에서 동지회의 '적통'을 잇는 안남공산당의 발언권은 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도차이나공산당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처리되는 시기에는 베트남혁명사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1925년 창설이후 중국에 기반을 두고 베트남혁명가들을 양성하며 베트남 내 조직을 지도했던 동지회의 총본부가 와해되고 있었다. 1927년 4월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점증되어 가던 중국국민당의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동지회 총지도부는 체포되거나 화를 피해 피신을 해야 했다. 응우옌 아이 꾸옥(Nguyen Ai Quoc)으로 당시 더 잘 알려진 호찌민은 1927년 5월 초에는 광둥을 떠나 한구를 거쳐 모스크바로 되돌아갔다. 중국공산당에 적을 두기도 했던 레홍선은 이 때 체포되어 1928년 말에 되어서야 석방되었다. 레홍선의 부재기간 중 동지회 총본부를 이끌었던 호 쩡 머우(Ho Tung Mau)는 1928년 12월에 중국국민당의 제3차 탄압이 중국공산당원들에게 미치면서 구속되었다. 1년 후에 석방되어 여러 공산파당을 통일시키고자 하였지만 그의 능력 밖이었다. 또한 동지회 총본부는 손문의 혁명정부 수도였던 광둥을 떠나 광서로 그리고 홍콩으로 옮겨다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회 총본부가 베트남 국내 동지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리 없었으며 '지도'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다. 국외에서 동지회 총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과는 정반대로 국내에서는 동지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건설된 세포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북부·중부·

19) 1928년 8월경에 이미 북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도차이나공산당이 남부에 파견한 열정적인 지도자 응오 자 뜨(Ngo Gia Tu)를 비롯해 레 반 르엉(Le Van Luong), 응우옌 쩡 야(Nguyen Trong Nha), 보 풍(Vo Phong)은 상당정도로 당원을 모집하고 노동자를 총원하고 있었다.

남부를 관장하는 3개의 지역위원회가 성립되었다. 1928년부터는 노동조합과 농민연합의 구성이 본격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내 활동가들은 무산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지회 총본부의 지도자들간에 이념적인 정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급진화된 그리고 무산화되어 가고 있었던 동지회 회원들과 비교한다면 이들은 모두 동지회의 기본틀을 최소한 잠시라도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동지회의 총본부가 무산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다. 우선 중요한 시기에 망명으로 감옥으로 떠밀린 지도자들이 기회를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운동의 기반인 베트남에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베트남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급진화된 국내 세력을 인정하고 공산당의 창당에 동의할 경우 최고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국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활동에 간여하고 있었던 해외지도자들은 동지회가 존재해야만 베트남 내부에서의 운동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발상이 시대착오적이었다는 사실은 동지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공산당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북부의 대표단의 이탈, 이들에 의한 인도차이나공산당의 창당, 그리고 단 몇 달 후에 이루어진 동지회 잔여분자들의 안남공산당의 창당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차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총본부 지도자인 레홍선, 럽득투, 레 러이는 모두 베테랑 혁명가들이었지만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공산주의를 베트남에 도입하려고 했던 이들의 의지에 반해 베트남의 실제 국내상황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었다. 1차 전국대회(의장이었던 럽득투는 프랑스 경찰의 비밀 앞잡이었다) 이후에도 간혹 국내에 기반을 둔 동지회의 회원들이 총본부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예가 보이지만 이는 개별적인 지도자와의 만남 이상이 아닐 것이며 전국대회 당시에 도 권력과 권위도 약했던 총본부는 이후로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동지회를 고수하고자 했던 총본부가 약화되면서 남부지역위원회는 명맥도 유지할 수가 없었다.

VI. 맺음말

개인적인 알력이든 남부 지역위원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든 툐득탕과 레반팻의 대치 관계는 보다 커다란 범주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레반팻이 지도하는 남부지역위원회와 툐득탕의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사이공 시위원회는 무

산화로 풀이 깊어가던 구세력과 신세력을 대표한다. 광동에 있는 총본부는 직접 레반팻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이후 조처한 내용을 보아도 레반팻에 동정적이었다. 노동운동 출신의 나름대로 무산화 또는 급진화 된 분자들(국내파 - 사이공시위원회 - 똘득탕의 고리)에게 광동 총본부 - 남부 지역위원회 - 레반팻으로 연결되는 집단은 1차 전국대회 이후 동지회에서 탈퇴하여 인도차이나공산당을 창당했던 북부의 급진파들이 총본부를 보았던 관점과 같이 '거짓' 혁명가 집단일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동지회에 대한 불만분자들을 남부에서는 똘득탕이 지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이공 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살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쩌 쩌엥, 당반쌈, 부이 반 텀은 모두 똘득탕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으며 사이공 시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다른 시위원회 여성회원인 응우옌 쩌 응우옌 쩌엥의 사촌으로 그녀 또한 똘득탕의 지지자였다. 이들의 이념적인 성향이 레반팻과 총본부의 그것과 어느 정도 소원화 즉 급진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이공 시위원회에 속한 성원들은 노동자 출신이며 똘득탕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이며 후자는 그 당시 어느 공산지도자보다도 노동운동에 실천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다는 사실이다.

급진화된 세력이 막 부상하려던 시점에서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형장의 이슬로, 감옥의 수인으로 운동의 현장에서 사라졌다. 1928년까지는 북부나 중부와 비교해서 반불혁명가들의 활동이 그다지 저조하지 않았던 남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부는 북부에서처럼 1929년 인도차이나공산당 창당의 주역이 된 토착적인 급진세력을 양성하지도 못했으며, 중부에서처럼 1930년 소비에트운동을 지도할 주체세력도 대중의 기반도 마련할 수 없었다. 이미 아무런 권력도, 권위도 없는 동지회의 총본부가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사후 수습을 위해 파견한 대표는 남부의 총본부에 대한 예속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자율성을 상실한 남부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후로도 파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주요 용어 : 청년혁명동지회, 신베트남혁명당, 베트남국민당, 똘득탕, 레반팻, 바르비에 거리 살인사건, 1928-1930, 사이공, 남부지부, 무산화

참고문헌

- Aix-en-Provence. 1930. Centre des Archives Nationales. Depot d'Outre-Mer(CAOM). GGI(Fonds du Gouvernement Generale Indochine) 65535.
- Ban nghien cuu lich cua Dang thanh pho Ho Chi Minh. 1981. *50nam Dau tranh kien cuong cua Dang bo va Nhan dan Thanh pho Ho Chi Minh*(호찌민 시 당 지부와 인민의 50년 투쟁사). Nha xuất bản thanh pho Ho Chi Minh.
- CAOM, GGI. 1933a. *Contribution a l'Histoire des Mouvements Politiques de l'Indochine Francaise*. Documents. Vol. I. Hanoi: Le "Tan Viet Cach Menh Dang" ou "Parti Revolutionnaire du Jeune Annam."(1925-1930)
- _____. 1933b. *Contribution a l'Histoire des Mouvements Politiques de l'Indochine Francaise*. Documents. Vol. IV. Hanoi: Le "Dong Duong Cong San Dang" ou "Parti Communiste Indochinois"(1925-1933).
-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Department of United State). 1949. *Political Alignments of Vietnamese Nationalists*. OIR Report No. 3708.
- Duong Quoc Anh. 1988. *Viet Nam, Nhung Su Kien Lich su 1858-1945*(베트남 역사 연대기 1858-1945). Tap III. 1919-1935. Hanoi: Nha xuất bản Khoa hoc Xa hoi.
- Hue Tam Ho Tai. 1922. *Radicalism and the Origins of the Vietnamese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uynh Kim Khanh. 1982. *Vietnamese Communism 1925-1945*.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R. B. 1972. "The Development of opposition to French Rule in Southern Vietnam 1880-1940." *Past and Present*, No. 54.
- _____. 1998. "The Foundation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1929-1930." *Modern Asian Studies*, Vol. 32.
- Tran Huu Chuong. 1983. "Hoi Ky"(회고). *Tap Chi Cong San*(공산잡지), Tap (권).2 Hanoi.
- Tran Huy Lieu and Van Tao. 1958. *Tai Lieu Tham Khao Lich Su Cach Mang Can Dai Viet Nam*(베트남 근대혁명사 참고자료), Tap(권). V. Hanoi.
- Tran Van Cung. 1961. "Chi bo cong san dau tien va Dong Duong Cong San

Dang.”(최초의 공산세포와 인도차이나공산당) Ban nghien cuu Lich su Dang. *Buoc ngoat vi dai cua Lich Su Cach Mang Viet Nam*(베트남 혁명사의 위대한 발자취). Hanoi: Truc thuc Chap hanh Trung uong Dang Lao dong Viet Nam Xuat ban.

Rue Barbier Affair and the Youth League in Nam Ky

Young-soon Nho

Le Van Phat who was in charge of the Nam Ky(South Vietnam) Regional Committee of the Youth League(Thanh Nien Cach Mang Dong Chi Hoi) was murdered in his office in rue Barbier in Saigon on the ninth of December 1928. This murder was instigat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of the Youth League in Canton(China), Ton Duc Thang and verdicted by a secret trial comprising some members of the Nam Ky Regional Committee and the Saigon City Committee and executed by an assassination squad.

According to the confession of the offenders, Le Van Phat was accused of at least three misdemeanors. First Le Van Phat was guilty of forcing a young revolutionary 'sister' to be his mistress. Second he was suspected of diverting the public funds including membership fee for his own need. Thirdly he plotted for creating his own group independent from the Youth League. The ke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rue Barbier crime depends on how could interpret seemingly conflicting rivalry between two main leaders of the Nam Ky Regional Committee, Le Van Phat and Ton Duc Thang.

On the first charge, the Nam Ky Regional Committee was content to transfer a 'femme mortal' to the Saigon City section. Ton Duc Thang, who certainly wanted to dismiss Le Van Phat from his post was disappointed and mobilized the Saigon City Committee in which he had many supporters. Even if we consider the possible infatuation with this newly recruited girl on the Ton Duc Thang's part as the French Surete saw it, personal jealousy can not explain the way to reach murder collectively by his sympathizers. Here we have to find out something common interest among the Youth League members in Nam Ky. The second charge belongs to this category. However embezzlement was common at that time and the same case at the headquarters' level was used to be kept tacit. According to the disciplinary regulation of the Youth League embezzlement was a crime to be punished from blame to permanent expulsion but not a crime to be punished to death.

The only charge corresponding to defection, treason, divulgence of the

organization's secret was regulated to be punished by death.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hird charge to grasp not only the clue to the murder itself but also the ground to re-interpret its implication. On that charge it is difficult to find direct details or clear evidence partly because this aspect did not interest the French Surete and newspapers available at that time and partly because the accused for the rue Barbier affair was reluctant to disclose that.

The rue Barbier affair should be understood in the wider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Vietnamese revolutionism in 1928-1930. The late 1920s saw the radical proletarianization. As a result, many activists who had been simple nationalists in the mid-1920s were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revolutionaries who equipped with radical ideas and discipline. In this course the Youth League was dividing into two factions: one group clung to old Youth League system: the others urged to create a vanguard party of the proletariat, communist party. In South we can say that Le Van Phat represented the former group connecting the headquarters of the Youth League in Canton and the Nam Ky Regional Committee which turned against the grudge of the Saigon City Committee. Meanwhile Ton Duc Thang is said to be a ringleader of the more radicalized members of the Youth League in Nam Ky who gathered around the Saigon City Committee. Based on biographical information we can find that eight accused of being complicated in the rue Barbier crime were more proletarianized through work experience and more baptized with communist doctrine. Their insistence on the Le Van Phat's treason can be interpreted that he at least was of something disagreeable with them. Or it can be said as boldly as that there was in fact the suspicion of their intention to create their own group apart from the Youth League. On the contrary, from the view point of the Youth League headquarters and Le Van Phat did this group which murdered Le Van Phat was suspicious of treason. At this point there was enough reason to kill him. This reasoning shows why the participants of the secret trial insisted the execution of Le Van Phat as imminent agenda which did not allow to wait answer from the headquarters. Also it explains the fact that after the murder Ton Duc Thang discarded the Youth League to create a labor party in Saigon.

Consequence of the murder overshadowed its causes. Any of two

heterogeneous groups inside the Youth League of the South could not survive for a while. The representative of old faction, Le Van Phat disappeared. Pham Van Dong, another man of the headquarters, who was dispatched in order to settle the event and replace Le Van Phat managed to hold Nam Ky under the headquarters of the Youth League. But its patron, the headquarters of the Youth League became weak by the anti-communist campaign in China itself and defection of the dissident members. In turn the murderers were horded into prison or remote place by the repression of the French Surete. As a result of the repression Nam Ky neither cultivated indigenou radical revolutionaries as in Bac Ky(North Vietnam) where the first version of communist party (Indochinese Communist Party, Dong Duong Con San Dang) took initiative to lead communist movement during forthcoming years nor keep up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ass movement as in Trung Ky(Central Vietnam) which culminated in the Nghe-Tinh soviets in 1930-31.

Key Words : Vitnamese Youth League, New Vietnamese Revolutionary Party, Vietnamese Nationalist Party, Rue Barbier Affair, South Vietnam, Saigon, Proletarianization,